

한국타이어, 사망원인 또다시 논란

금산공장 직원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사망 ... 타이어반제품 조합 업무

직원들의 잇단 돌연사로 논란을 빚었던 한국타이어에서 금산공장의 한 직원이 암치료 후유증으로 사망해 사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.

한국타이어에 따르면, 12월8일 오후 금산공장 직원 조씨가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.

2001년 5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조씨는 금산공장 성형과 등에서 타이어 반제품을 조합하는 업무를 맡아왔다.

조씨는 비인두암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업무에 복귀했으나 7월경 목에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가 방사선 치료 후유증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.

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는 “한국타이어에서 노동자들이 집단 돌연사한 데 이어 다시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”며 “노동부는 즉각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과 전면적인 재역학조사를 실시하라”고 촉구했다.

한국타이어 관계자는 “조씨가 근무하던 작업장의 환경측정결과 소음이나 유해물질 등에서 노출기준에 초과하는 항목은 없었다”고 해명했다.

한편,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, 연구소에서 2006년 5월부터 1년6개월 동안 직원 14명이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잇따라 돌연사 해 원인을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12/09>